2014 7.13 연중 제 15 주일

제 1 독서 : 이사야 55,10-11 <비는 땅에서 싹이 돋아나게 한다.>
제 2 독서 : 로 마 8,18-23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 음 : 마태오 13,1-23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연중 제 15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추가로 또 풀이를 해 주고 계십니다. 꼭 읽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 있지만 사실 그것을 읽어야 더 확실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풀이해 주신것이 아니라 그

후에 붙여진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 복음 말씀을 이해하기에 더 쉬운것은 나중에 풀이된 성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비와 눈은 이땅에 소득을 얻지 않고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다**' 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실천한다면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우리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 독서에 보면 사도 바오로 성인께서 로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인데, '**계시된 영광에 비추면 지금 이시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는 그 앞으로 올 희망이, 내가 겪는 고통보다 작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희망을 크게 갖는다면 지금 겪는 고통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희망이 나에게 크고 작은 것이 하느님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얼마만큼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내 희망이 내가 지금 겪는 고통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사도께서 쉽게 이야기 해 주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기쁨이, 행복이 네가 지금 겪는 고통의 백배, 천배가 될것이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몇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꽃동네를 창시한분이, 신부님이 창시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걸인입니다. 걸인으로 부터 영감을 받으시고 신부님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 때 그 걸인 할아버지가 두 세분의 걷지 못하고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을, 동냥을 해서 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걸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동냥을 할 힘만 주신 것도 하느님의 은총**' 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 할때마다 온 몸에 소름이 끼치듯 전율이 흐르곤 합니다. 사실 바오로 성인은 철학적인 사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계속 생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느낌과 행동들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오로 사도께서는 물론 성령의 감화를 받으셨지만 또한 그만큼 철학적인 사고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어 보십 시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인간은 잘 생겼고 못 생겼고 간에, 부자고 가난하고 간에 늘 고통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에 물들여져서 돈만 가지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긁어 모으지만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 이지요. 어제 본당신자 한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막 은퇴를 하셨고 돈도 시간도 많습니다. 성당에도 자주 오십니다. 제가 그분께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껄껄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 웃으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때는 물질적인 모든것이 충족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서 행복을 다 찾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부 역시 올인을 하지 못할 때에는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 제 2 독서와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조상들이 하신 격언이 생각났습니다. “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는 말씀이 있지요 .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그 고통 뒤에 오는 기쁨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삶에서는 인생의 맛을 모를 것입니다. 삶의 맛이 없습니다. 인생의 재미는 사실은 높낮이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살 때에야 비로소 재미를 느끼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음식의 맛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금씩 느껴 봅니다. 11 년동안 이태리에서 생활하면서 포도주를 전혀 입에 안대었다고 하면 거짓이겠지만 사실 몇번 입에 대어 보았지만 전혀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포도주가 “ 아하 , 이런 맛 이로구나 ”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격언도 있지요 , “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버린다.**” 고 하지요 ?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이성당에 부임하였을 때에 세례를 그냥 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러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것을 99% 못 보았습니다. 우리가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중요 한지를 모릅니다. 신앙이란 그냥 놔두어도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신앙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또한 하느님 께서는 우리에게 옥토를 주셨습니다. 검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옥토가 어떻게 변화 되었습니까 ? 잘 돌보지 않으면 딱딱한 땅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비가와도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결국에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가지 땅의 모습으로 변화 되어버리고 맙니다. 길거리, 돌밭, 가시덤불. 혹시 성당에 오셔서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잔디밭을 보십시요. 어떤 곳에는 잔디가 죽었고, 어떤곳에는 잘 자랐고, 또 어떤 곳에는 최근에 꺼뭇꺼뭇한 곳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라운드키퍼가 되어 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잔디가 죽은 곳은 , 일단 곡괭이로 캐고 그곳을 검은땅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잔디가 다시 살아납니다. 아주 푸릇푸릇하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옥토의 땅을 주셨지만 이 세상의 유혹애 의해서, 또 내 생각의 거친 마음에 의해서 꽉꽉 다져졌습니다. 그것을 하느님께서 캐고, 검은 땅을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해야 하느님의 은총이 쏙쏙 ! 우리 마음속 깊이 영양소를 내려 주신다는 것 입니다. “ 싼게 비지떡이다” 라는 속담이 틀린것이 아닌것이, 바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그것도 진리의 일부라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얻은 신앙을 가꾸기 위하여, 열정과 재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 신앙에 기쁨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은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복음 말씀과 2 독서, 1 독서를 다시한번 가족과 읽으시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요. 나는 과연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가 ? 그래도 여기에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은 적어도 돌밭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만 가시덤불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가시덤불을 어떻게 하면 걷어낼 수 있을까? 한번 가족들이 상의 를 하여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삶을 사신다면, 희망이 이 세상의 어려운 것을 이겨 나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비는 땅에서 싹이 돋아나게 한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5,10-1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0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11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65(64),10 ㄱㄴㄷㄹ.10 ㅁ-11.12-13.14(◎ 루카 8,8)
◎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네.
○ 하느님은 이 땅에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하느님의 강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은 곡식을 영글게 하시나이다. ◎
○ 정녕 당신이 장만해 주시나이다. 고랑에 물 대시고 이랑을 고르시며, 비를 내려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복을 내리시나이다. ◎
○ 한 해를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니, 당신이 가시는 길마다 기름진 땅이 되나이다. 사막의
풀밭에도 윤기가 흐르고, 언덕들도 기쁨의 띠를 두르나이다. ◎
○ 목장들은 양 떼로 뒤덮이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환성을 올리며 노래하나이다.
◎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18-23
형제 여러분, 18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21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22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3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1-23<또는 13,1-9>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1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7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0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12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15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18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20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21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22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23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